

# 中宗代 官僚 文人の ‘文治’에 대한 기억과 정책적 계승\*

- 世宗·成宗代 학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정 용 건\*\*

< 目 次 >

I. 문제 제기	1. 서적 정비 및 간행 사업
II. 中宗代 官僚 文人の 학적 배경과 ‘文治’ 소환의 맥락	2. 인재 양성과 문사 우대 정책
III. ‘文治’의 정책적 계승 양상	IV. 결론

<국문 초록>

본고는 中宗代 官僚 文人들의 의식 속에 世宗·成宗대의 ‘文治’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것이 당대의 학문·문화 정책 추진에 주요한 동력이 되었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중종대 관료 문인들은 세종·성종으로 대표되는 이전 시기의 文運 盛世를 경험한 세대로서, 燕山君 시기에 정치적 좌절을 겪은 뒤 중종대에 이르러 과거의 정치를 자신의 시대에 구현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들이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성종의 치세가 훌륭한 故事로서 빈번히 언급됨은 물론, 이에 대한 계승이 정치적 구호로까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문학전공 박사과정수료 / macho703@naver.com

고 그러한 기억과 열망은 단순한 修辭나 名分 차원에서 활용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정사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서적의 정비 및 간행, 인재 육성 등 각종 학문 정책 국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전기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세종·성종대의 학문적 유산은, 중종의 시대에도 여전히 ‘文治’라는 이름으로 유효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文治’라는 키워드를 통해 중종대 관료 문인의 가치 지향과 실제 정책을 분석하는 작업은, 이들의 학문관을 이전 시기와의 연속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본다. 아울러 이는 그간 ‘詞章’라는 이름 하에 다분히 평면적인 해석을 면치 못하였던 이들의 당대 활동에 입체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들 나름대로 영위해 갔던 시대정신의 일면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주제어】 中宗代 官僚 文人, 世宗, 成宗, 文治, 詞章派

## I. 문제 제기

16세기 전반 中宗代의 학문 정책은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성장한 官僚·文人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조정의 고위 관원이자 大提學과 같은 주요 文翰職을 담당하기도 했던 이들은, 서적 편찬, 경연, 유생 교육, 사신 접반 등 공적 단위에서 이루어진 학문·문화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의 활동은 당시 ‘道學’의 실현을 주창하던 신진 사류들, 소위 ‘士林派’와의 학문적·정치적 대비 속에서 ‘詞章’이라는 특정 측면만이 부각되거나 前代 및 동시대 士類들과 단절된 존재로 설명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로 인해 이들이 실제로 지니고 있던 학문의 多岐한 면모는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이 시기 학적 구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도식적·평면적인 모습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때문에 근래에는 ‘詞章’이라는 현상적 차원을 넘어, 학적 배경이나 문학론의 시대적 맥락 등 다양한 지점들을 폭넓게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학

문 세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제출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은 연구 동향을 인식한 위에서, 중종대 관료 문인의 학문과 문학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전 시대, 즉 世宗成宗으로 대표되는 ‘文治’<sup>2)</sup>에 대한 이들의 기억과 그 계승 양상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물론 15세기 세종에서 성종으로 이어지는 治世는 조선에서 文運이 가장 융성했던 시대로 인식되어, 후대 지식인이라면 누구든 이 시기를 통치의 龜鑑이자 典範으로 여겼다. 다만 중종대는 시기적으로 이들의 시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었을 뿐 아니라, 연산군이라는 ‘昏君’의 시대에 대한 극복을 명분으로 성립되었던 만큼 정치적으로도 盛世와 文治에 대한 인식 및 열망이 다른 어느 때보다 강했던 시기이다. 그와 같은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제출된 세종성종의 치세에 대한 풍부한 기록과 기억들, 이에 대한 양상이 실증적으로 제시되고 그 의미가 해석될 수 있다면 당대 관료 문인들이 지닌 학문관의 근본 지향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코드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중종대 관료 문인의 의식 속에 세종성종의 文治에 대한 향수와 동경이 강하게 내재해 있었다고 보고, 이것이 당대 학문 및 문화 정책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종대에 세종성종의 문치에 대한 기억이 집중적으로

1) 흔히 ‘사장과파’로 분류되어 오던 중종대 관료 문인의 학문과 문학 세계를 보다 입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는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된다. 근래에 제출된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종묵, 「남곤의 삶과 문학」, 『한국한시작가연구』 4호, 한국한시학회, 1999; 정용건, 「止亭 南袞의 학문 지향과 문학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최민규, 「남곤의 경학문장 병행의 학문관과 정치의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정용건, 「希樂堂 金安老의 文章觀과 學問 興起論」, 『大東漢文學』 50호, 대동한문학회, 2017.

2) ‘文治’란 일반적으로 ‘학문과 법령을 숭상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따르되, 당대 문인들이 인식한 文治의 개념을 고려하여 ‘학문과 문학의 振作을 목표로 한 일련의 정치 행위’라는 개념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등장한 배경과 그 양상을 검토하고, 이어 그러한 의식이 실제 정책 시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그간 평면적·분절적 해석을 면치 못해왔던 이 시기 관료 문인의 학문관을 앞 시대와의 관계성 속에서 입체적·연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5세기 세종·성종이 주도했던 ‘文治’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sup>3)</sup>

## Ⅱ. 中宗代 官僚 文人の 학적 배경과 ‘文治’ 소환의 맥락

『中宗實錄』을 비롯한 중종 때의 여러 기록들에는 과거 시대, 특히 세종·성종의 시대를 ‘文運의 盛世’로 인식하여 그에 대한 기억을 각종 국면에서 소환하는 모습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 시기 자료에서 그와 같은 경향이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이며, 그 실제적 양상은 어떠한하였는가. 이에 대한 규명을 위해 먼저 중종대 관료 문인의 성장 배경 및 학문 기반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것이 중종대의 公論場 속에서 ‘문치’에 대한 기억과 어떻게 결부·발현되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중종대 관료 문인들이 남긴 기록 속에서 세종·성종의 치세에 대한 기록이 유독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시대가 앞 시기와 바로 인접해 있어 前代에 이룩된 ‘성대한 文運’의 餘響을 이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위기의 대략을 짐작하기 위해, 당대에 활약한 주요 문인들의 가문 배경을 먼저 들여다보자. 중

3) 이와 관련하여 오세현은 조선 중기 문장 사대가를 논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16세기 중종대 문장의 효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의 양상을 정리하면서, 조선 전기부터 중종대까지 ‘斯文’의 가치는 변함없이 중시되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오세현, 「조선중기의 ‘斯文’과 文章 四大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78-100).

종대 첫 번째 대제학이자 훗날 영의정에까지 오른 申用漑(1463~1519), 그리고 당대의 유력 문인으로서 仁宗·明宗 때 대제학을 지낸 申光漢(1484~1555)은 모두 세종·성종대의 名臣 申叔舟(1417~1475)의 손자였다. 또한 중종 때 대제학과 좌의정을 지낸 金安老(1481~1537)는, 文士로서 성종의 지우를 입고 사가독서의 혜택을 누리며 당대 각종 문화 사업에 참여했던 金訥(1448~1492)의 아들이자 蔡壽(1449~1515)의 사위였으며, 중종 초 『續三綱行實圖』, 『續東文選』 등의 관찬서 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金詮(1458~1523)은 위에 언급한 김흔의 아우였다. 뿐만 아니라, 대제학을 지내고 우의정에 오른 중종대의 대표적 문사 李荇(1478~1534)은 성종의 총애를 받은 李宜茂(1449~1507)의 아들이었고, 중종 때 홍문관 부제학을 거쳐 인종 때 대제학에 임명된 成世昌(1481~1548)은 성종 때의 문신이자 연산군 때 대제학을 지낸 成侃(1439~1504)의 아들이었다. 혈연·인척 관계를 통해 제시한 몇몇 사례를 통해서도 간취할 수 있듯, 중종대의 관료 문인 가운데는 세종~성종 시대에 학문적 전성을 누린 명문가 출신으로서 15세기 盛世의 현장을 고스란히 경험한 인물이 적지 않았다.

그러한 경험의 흔적은 이들이 거쳐 간 학문 및 관직 이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종대 관료 문인들은 대체로 성종 말~연산군 초에 관직에 진출한 뒤 일찍부터 학문과 문장에 두각을 나타내어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용개의 경우, 1488년(성종19) 문과에 급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弘文館 修撰에 임명되고 經筵에 출입하며 성종 앞에서 진강을 하였고, 1492년(성종23)과 1496년(연산2) 두 차례에 걸쳐 金駟孫 등 당대의 유망한 문사들과 함께 賜暇讀書할 관원으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그는 이후 홍문관과 예문관의 應教, 홍문관 直提學 등의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장차 문형을 맡을 인재로 주목을 받았다.<sup>4)</sup> 다음, 중종대의 두 번째 대제학인 南袞(1471~1527)의 경우를 보자. 남곤은 1494년(성종24) 문과에 급제한 이후 젊은 시절부터 문장으로 특히 주목을 받아

4) 신용개의 관력은 李荇이 지은 「議政府左議政申公神道碑銘」(『容齋集』)에 상세하다.

연산군대에 홍문관 교리와 응교, 전한에 연이어 임명되었으며, 얼마 뒤에는 홍문관 부제학으로 超陞되었다.<sup>5)</sup> 그리고 그 역시 신용개와 마찬가지로 1496년 讀書堂에 선발되어 학업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 받았다.<sup>6)</sup> 또한 중종 초 꾸준히 대제학의 물망에 올랐던 姜渾(1464~1519)이나 金詮의 사례를 보더라도,<sup>7)</sup> 이들은 각각 1486년(성종17)과 1489년(성종20)에 문과에 급제하여 문장 관련 요직을 지냈으며 1496년에는 김일손, 신용개, 남곤 등의 문인들과 함께 사가독서를 경험하는 등<sup>8)</sup> 향후 유력 관료 문인으로 성장할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처럼 문장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아 應敎, 直提學 등의 문한 요직을 두루 거침은 물론 세종·성종대의 인재 양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인 ‘사가독서’의 기회까지 부여받은 사실이 중종대 관료 문인의 이력에서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점은, 이들의 이후 행보를 논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sup>9)</sup> 요컨대 이들은 기본적으로 세종과 성종이 구가한 文運의 시대를 목도하고 그 遺制를 경험하면서,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 역시 학문을 통해 국가를 빛낼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연산군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러한 기대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였다. 戊午年(1498)과 甲子年(1504), 士禍라 일컬어지는 두 차례

5) 남곤의 관력은 그의 외손자 宋寅이 지은 『外祖考領議政贈諡文敬南公墓誌』(『頤庵遺稿』)에 상세하다.

6) 『燕山君日記』「2年 12月 15日」

7) 『中宗實錄』「5年 1月 8日」, “史臣曰: 申用漑曰: ‘吾嘗自愧主文。今時之優於文翰者, 南袞爲上, 其次姜渾, 其次金詮, 其次則吾不讓焉: 嘗與朴說, 同宿齋舍, 說挑燈讀書, 用漑曰: ‘君雖勤讀, 吾當以衣鉢, 傳於士華, 而不傳於君, 讀之何益?’ 說遂止。士華袞之字也。”

8) 『燕山君日記』「2年 12月 15日」. 강혼의 관력은 郭鍾錫의 「神道碑銘」(『木溪逸稿』)에, 김전의 관력은 申欽의 「領議政金公神道碑銘」(『象村稿』)에 상세하다.

9) 조선 전기에 문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提學, 直提學, 應敎, 奉敎, 待敎 등의 직책을 거쳐야 했다. 또한 문장에 대한 재능을 보인 인물에게 賜暇讀書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문과 문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종묵,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성격과 문예미」, 『국문학연구』 8호, 국문학회, 2002, pp.45-50. 참조).

의 정치적 탄압 국면 속에서, 자기 자신이 유배 혹은 파직 등의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선배와 동료들이 극형을 당하는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신용개와 남곤의 사례를 가지고 보더라도, 본인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투옥되거나 유배되었을 뿐 아니라<sup>10)</sup> 자신의 스승인 金宗直이 부관참시를 당하고 親友였던 김일손이나 朴闇 등이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sup>11)</sup> 당대에 촉망받는 학문 엘리트였지만, 연산군에 의해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단절과 상실을 경험하고 만 것이다.

정치적·학문적 성장에 대한 기대와 좌절 사이의 괴리로부터 비롯된 감정의 낙차 속에서, 이들은 연산군으로 인해 손상된 世道를 탄식하고 한편으로 이전 시대로의 회귀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갈망은 반정을 통해 즉위한 왕으로서 자신이 침체된 世道를 일으키고 文風을 부흥시킬 책임자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증명해낼 필요가 있었던 중종과 입장을 함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학문 배경과 시대적 맥락이 존재했기 때문에, 새 시대의 관료 문인으로 성장한 이들은 세종·성종 이전의 찬란했던 ‘문치’에 대한 그리움의 심정을 다양한 국면에서 노출하였던 것이다.

我東文物越隆古      우리 동방의 문물 매우 오래되었으니  
光昭曄曄垂鴻略      찬란하게 빛을 내며 원대한 계획을 드러웠네

10) 신용개는 1498년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투옥되었다가 尹弼商의 청으로 인해 석방된 바 있으며, (『燕山君日記』「4年 7月 22日」) 남곤은 1504년 갑자사화에 걸려 변방으로 유배되었다(『燕山君日記』「10年 9月 18日」).

11) 戊午士禍 때 죽임을 당한 김일손은 김종직의 문인이자 사가독서를 함께한 동료로서 신용개, 남곤 등과 돈독한 교류 관계를 지낸 인물이었다. 이들의 관계는 신용개의 「移葬金季雲遺骨挽詞」(『二樂亭集』)나 尹根壽의 「漫錄」(『月汀集』)에 수록된 각종 일화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甲子士禍 때 화를 당한 박은은 신용개의 사위이면서 남곤이행과 특히 긴밀하게 교류한 인물이었다. 박은의 문집 『挹翠軒遺稿』와 이행의 문집 『容齋集』에는 이들 간에 서로 주고받은 시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실려 있어, 당대 이들의 교류 관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世宗成宗盛於斯	세종과 성종께서는 이 중에서도 성대하시어
藹藹麟鳳羅臺閣	수많은 기린과 봉황이 조정에 가득하였다네
佔畢季雲振大聲	佔畢齋(金宗直)과 季雲(金駟孫)이 큰 명성을 떨쳤고
黃許相業何恢廓	黃喜와 許稠가 재상을 맡은 일 어찌도 그리 훌륭한가
春容大雅接武起	웅장하고 전아한 이들 연이어 일어나고
紛紜不數甫與白	두보와 이백 같은 이 무수히 나왔다네
中遭壞亂天降厄	중간에 壞亂함 만나 하늘이 액운을 내리니
人理絕滅乾維圻	人理가 끊어지고 나라의 기강 무너졌네
三光淪精氛霧隔	三光의 精氣 감추어지고 안개가 앞을 가로막으니
元氣灰散歸蕭索	元氣가 흩어져 황폐해지고 말았다네
重回日月揭天衢	그러다 다시 일월을 되돌려 하늘에 걸어두니
后土昭蘇開炳燦	后土가 밝게 소생하여 빛나는 시대 열었네
昭代降精分光嶽	밝은 시대 정기를 내려 천지에 나누어주니
要與一世爲木鐸	한 세상의 법령이 되고자 함이네 <sup>12)</sup>

위는 金淨(1486~1521)이 鄭士龍에게 지어준 증별시의 일부로서, 중종대 文壇의 유망주였던 정사룡에게 국운 흥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이 시의 전반부에서 동방의 예악문물을 흥기시킨 공은 세종과 성종만한 이가 없었다고 하며, 黃喜·許稠 같은 명재상, 金宗直·金駟孫 등의 명사들이 연이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은 선대왕들이 이룩한 문치의 결과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후 비록 연산군의 등장으로 인해 융성했던 나라의 세도는 잠시 끊어지고 말았지만, 새로 즉위한 중종이 이전 시기의 성세를 다시금 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뛰어난 인재들이 출현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시대에 그러한 문운이 다시금 소생하기를 바라는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비록 1519년 己卯土禍 때 趙光祖와 함께 연루되어 유배지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그였지만, 정사룡을

12) 金淨, 『冲庵集』 「贈鄭雲卿行 五十韻」, “我東文物越隆古, 光昭曄曄垂鴻略, 世宗成宗盛於斯, 藹藹麟鳳羅臺閣, 佔畢季雲振大聲, 黃許相業何恢廓, 春容大雅接武起, 紛紜不數甫與白, 中遭壞亂天降厄, 人理絕滅乾維圻, 三光淪精氛霧隔, 元氣灰散歸蕭索, 重回日月揭天衢, 后土昭蘇開炳燦, 昭代降精分光嶽, 要與一世爲木鐸.”

비롯한 金安老, 蘇世讓, 申光漢 등 유력 문사들과 함께 사가독서를 경험할 정도로 당대에 촉망받는 인재 중 한 명이었던 만큼<sup>13)</sup> 그 역시 이처럼 문운 회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기록에는 그와 같은 그리움이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세종께서는 文治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시어 인재를 육성하고 진작시킴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뛰어났다. 集賢殿을 설치하고 선비들을 가득히 모으고는 번갈아가며 숙직하도록 하여 강론하는데 대비하도록 하였으니, 인재에 대한 융숭한 대접을 두고 세상에서는 瀛洲에 오른 것에 비유하곤 하였다. 文忠公 申叔舟가 숙직하였을 때의 일이다. 밤 2경쯤 되자 상께서 환관에게 명령하기를, “가서 숙직하는 선비가 무엇을 하는가 엿보고 오라.” 하니, 환관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촛불을 켜고 글을 읽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후 이렇게 서너 번을 엿보도록 하였는데, 글 읽기를 여전히 그치지 않다가 닭이 울고 나서야 비로소 잠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상께서 가상히 여기고 貂裘를 벗어주시고는 자는 틈을 타 따뜻이 덮어 주라고 하였다. 신숙주는 아침에 일어나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았다. 선비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학문에 힘쓰게 되었다.<sup>14)</sup>

김안로가 지은 雜錄 「龍泉談寂記」의 일부다. 여기에는 文治가 크게 흥성했던 세종 연간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가 등장한다. 集賢殿 학사로 있던 申叔舟가 밤늦게까지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아 세종에게 용포를 하사받았다는 내용의 널리 알려진 미담이다. 집현전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文士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학문에 능한 인재가 절로 육성될 수 있었던 세종의 시대에 대한 향수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위

13) 『中宗實錄』「10年 5月 5日」

14) 金安老, 『希樂堂稿』「龍泉談寂記」, “英廟篤意文治, 育材作人之美, 高邁前昔. 置集賢殿, 盛萃儒士, 更日直宿, 以備討論, 寵接之隆, 世比登瀛洲焉. 申文忠叔舟, 一日豹直, 漏下二箭, 上命小宦往覘直士何爲, 小宦還白, 方然燭讀書, 如是往規數四, 讀猶不輟, 鷄鳴, 始報就寢矣. 上嘉之, 解貂裘, 令乘睡熟覆其上. 文忠朝起方覺, 士林聞之益勸.”

기록 뿐 아니라 김안로는 「용전담적기」 내의 다른 話素에서, 세종 때 시작되어 성종 때 전성을 이룬 賜暇讀書의 시행과 운영에 대해 회상하면서 이전만 못해진 독서당의 현재에 대해 한탄하거나,<sup>15)</sup> 曹偉, 俞好仁, 成希顔 등의 文學之士를 총애하고 정성으로 대우한 성종의 고사를 소개하는 등,<sup>16)</sup> 문운이 융성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적지 않게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이 시기 관료 문인들의 의식 속에 세종과 성종의 시대가 하나의 문화적 이상향으로 자리하고 있던 정황을 확인케 하는 지점이다.

또한 그러한 의식은 개인적인 향수나 추억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중앙 조정에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① 승지 權弘이 아뢰었다.

“三代 이후의 賢君은 오직 漢文帝, 唐太宗, 宋仁宗, 金世宗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世宗과 成宗의 성덕이 더욱 훌륭하였습니다. 世宗 때의 일은 신이 미처 알지 못하지만, 신이 성종을 보건대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어진 선비들을 접견하시고 治道를 물으셨으므로 모든 풍속과 교화의 아름다움이

15) 金安老, 『希樂堂稿』「龍泉談寂記」, “我朝英廟肇做其制, 賜暇讀書, 其選前後不過三四人. 逮至宣廟, 其規寢備, 初選六人, 賜長暇于藏魚寺, 任其所之. 中葺龍山廢佛寺, 輪玉堂員休一月後, 又選七人, 判一年更代之, 分賜法醞珍饌紙札什器之備, 視古有加. (中略) 渠渠輪奐之美, 迴過龍山舊制, 廩給該供之豐, 亦優前代, 而駸駸爲文具, 堂雖不罷, 常見其空, 其事始不重云. 以余無似, 亦嘗終始忝諸君末, 其漸不嗣古, 豈以是夫, 未嘗不仰思而三嘆之.”

16) 金安老, 『希樂堂稿』「龍泉談寂記」, “英廟篤意文治, 育材作人之美, 高邁前昔. 置集賢殿, 盛萃儒士, 更日直宿, 以備討論, 寵接之隆, 世比登瀛洲焉. 申文忠叔舟, 一日豹直, 漏下二箭, 上命小宦往規直士何爲, 小宦還白方然燭讀書, 如是往規數四, 讀猶不輟, 鷄鳴, 始報就寢矣. 上嘉之, 解貂裘, 令乘睡熟覆其上, 文忠朝起方覺, 士林聞之益勸.”

“宣廟好文, 纘契兩聖, 寵獎儒林, 迴出常謨, 一時文章魁傑之士, 彪炳玉署, 如梅溪三魁樞溪暨先大夫, 尤被隆眷, 常所述作, 隨月書進, 梅溪濡溪, 俱以親老丐外, 特致米碩以優其親, 濡溪進稿, 有北望君臣隔, 南來母子同之句, 上從容賞詠曰, 好仁身雖在外, 心不忘君矣, 梅溪遭艱, 錫祭榮之, 寵及存亡, 人人感起, 鼓舞人材, 振作士氣, 誠千載罕遇之盛也.”

이로부터 더욱 창성하였습니다. 지금 聖德을 지니신 성상께서 왕위에 올라 태평성세를 이룩하고자 하신다면 성종을 본받으셔야 할 것입니다.”<sup>17)</sup>

② 『周易』의 解卦를 강하였다. 영사 宋軼이 아뢰었다.

“解卦의 뜻을 보니, 바로 지금의 때와 같습니다. 廢朝 때에는 시운의 艱難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지금은 폐조의 뒤를 이었으니, 마땅히 簡易하고 寬大한 도를 힘써 따라 선왕의 制禮와 作樂을 修復하여야 할 것입니다. 世宗朝에는 모든 일에 簡易함을 우선시하였음에도 禮樂과 文物이 환연히 크게 갖추어졌습니다. 원컨대 상께서는 모름지기 세종을 본받으시고 成宗 때의 일을 참작하소서.”<sup>18)</sup>

위는 중종 초기 經筵에서 제기된 발언들이다. 승지 權弘(1467~?)은 우리나라에서 聖德을 이룬 군주는 세종과 성종만한 인물이 없다고 하면서, 태평성세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들의 治道를 본받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영사 宋軼(1454~1520)은 『周易』「解卦」의 내용을 중종에 의해 새 시대가 열린 당대의 상황에 비유하였다. 그러면서 연산군에 의해 실추된 時運을 흥기시키는 것이 정책 수행의 우선 과제라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禮樂文物을 찬연하게 구비한 세종을 본받고 성종을 참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스림의 방도를 논하면서 세종과 성종을 전범으로 내세우는 이와 같은 모습은 실록 내 다른 기록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예컨대, 沈貞의 아우로도 유명한 沈義(1475~?)는 중종에게 10가지 時務를 箴의 형태로 지어 올렸는데, 「十宜箴」 그중 ‘學問宜勤’ 조에서 언제나 『大學』과 『中庸』

17) 『中宗實錄』「3年 3月 15日」, “承旨權弘曰: ‘三代以下賢君, 惟漢文帝, 唐太宗, 宋仁宗, 金世宗而已. 在我朝世宗成宗聖德尤盛, 世宗朝事, 則臣未及知之, 臣見成宗, 日御經筵, 接見賢士, 訪問治道, 凡風化之美, 由是而益昌. 今聖德龍興, 欲致太平之盛, 在乎聖法成宗而已.’”

18) 『中宗實錄』「6年 10月 14日」, “講易解卦. 領事宋軼曰: “觀解之義, 正如今時. 廢朝時屯難極矣, 今承廢朝之後, 當務從簡易寬大之道, 以修復先王制作. 世宗朝, 凡事從簡, 然而禮樂文物, 煥然大備, 願上須以世宗爲法, 參以成宗時事.”

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학문을 권장했던 세종의 사례를 본받아야 함을 역설하였다.<sup>19)</sup> 또 趙光祖(1482~1519)는 세종 때의 예악문물은 周나라와 방불할 정도였다고 하면서,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先王이 그러했던 것처럼 小人을 배척하고 大臣이 나랏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이에 더 나아가, ‘先王 追隨’와 ‘盛世 회복’이라는 명분은 조정 관료들이 중종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① 신 등은 삼가 생각건대, 지난날 天命이 保佑하지 않으시어 국운이 否塞함을 만났습니니다만, 전하의 聰明하고 恭儉하신 덕은 일찍부터 중외에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하늘이 돌보아주시고 백성이 귀의하여 祖宗의 사업과 법도를 계승하고 병든 것과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모습이 마치 중천에 뜬

19) 沈義, 『大觀齋亂稿』「十宜箴」, “學問宜勤: 勤學問, 明王道也. 世宗雖在進膳時, 必開卷真諸左右, 嘗曰, 句讀經書, 無益於學, 必有心上工夫, 乃有益矣. 臣竊念爲學之道, 莫先於窮理, 窮理之要, 必在於學問, 而循序致精, 潮漬浹洽, 心上經綸, 可以馴致, 此大學之格物致知, 中庸之博學審問慎思明辨也. 世宗之勤學問, 其在於此乎, 然則不可不勤者, 學問也, 其可使怠惰因循, 支離躑躅於聖賢之訓乎? 臣願殿下, 以勤學問, 爲明王道之本. 箴曰, 學問之道, 非誠而何, 人百己千, 厥功倍多, 虛心涵泳, 勿鑿勿浮, 不誠無物, 安肆日偷, 寸陰當惜, 庶追前修.”

심의를 이밖에 다른 9개 箴에서 각 조목마다 태종, 성종 등 先王의 훌륭한 일을 거론하며 그들의 정사를 본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중종은 ‘고사를 끌어와 規諫한 것이 매우 간절하다’고 하면서 칭찬하였다.(沈義, 『大觀齋亂稿』「十宜箴」, “因求言箴. 上曰: ‘援引故事, 規諷懇切, 近來上章者雖多, 不如此疏之慷慨也. 云云.’”)

20) 趙光祖, 『靜菴集』「副提學時啓一」, “我國世宗朝, 禮樂文物, 制度施爲, 髣髴乎周時, 而至於廢朝初年, 成宗梓宮, 在殯未久, 而宮中所爲, 已可寒心, 惟其一身, 不能善飭. 故士大夫皆失恒心, 終至迷亂而莫救, 賴祖宗德澤深厚, 浹于民心. 故聖上卽位之後, 人心庶幾向善, 而然其舊染汚俗, 難可猝新也. 當此機會, 不正士習, 不厚民生, 不立萬世不拔之基, 則聖子神孫, 將何所取法乎? 自古, 欲治而不能善治者, 必有小人喜爲讒間生事故也. 臣謂聖學, 日進於高明, 而又推誠以待大臣, 則大臣不敢以雜語, 陳于上前, 而必盡心於國事矣. 國事不出於大臣, 則上下違拂不順, 而無以致治矣.”

해와 같았습니다. 즉위하신 초기에 승려 되기를 허락하지 않는 일을 가장 먼저 명하시고 또 절을 창설하고 수축하는 것을 금하셨으니, 신 등은 唐虞 三代의 치세를 다시 동방에서 볼 수 있고 세종, 성종의 교화가 오늘날 다시 행해질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도 되기 전에 갑자기 처음에 내리셨던 명을 바꾸어 성안의 사찰을 다시 세우라고 명하시니, 邪道의 근본을 즉시 뽑아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찌 제멋대로 내버려두어서 지금처럼 번성하도록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sup>21)</sup>

② 臺諫들이 말한 일에 대해서는 신이 侍從臣의 班列에 있으면서 상세히 들었습니다. 국가의 財用이 모두 고갈되었고 賢邪가 뒤섞여 있으며 상벌에 있어 일정한 법도가 없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처음 정사를 수행하실 적에 장차 淸명한 정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中外의 사람들 또한 다시 世宗과 成宗의 훌륭한 정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간들의 아뢴 내용을 이렇게까지 윤택하지 않으시니, 중외의 사람들이 몹시 놀라고 있습니다.<sup>22)</sup>

①은 1507년(중종2) 궐내에 사찰을 세우고자 하는 중종에 대해 臺諫들이 극력 반대하며 올린 상소의 일부다. 대간들은 새로 즉위한 중종이 실정을 거듭한 연산군과는 다른 정사를 펼쳐세종·성종 같은 교화를 이루어 주리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邪道를 대궐에 받아들여려 하고 있으니 애초의 바람과 크게 어긋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는 1508년(중종3) 반정 공신에 대한 책봉이 실상보다 지나치게 이루어진데 대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한 장령 金克幅(1472~1531)의 간언이다. 그 역시 자신의

21) 『中宗實錄』「2年 1月 12日」, “臣等伏以, 頃者, 天命不佑, 國運中否, 殿下聰明恭儉之德, 夙著中外. 故天眷之人歸之, 繼祖宗之業, 述祖宗之法, 蕩滌瑕垢, 如日中天. 卽位之初, 首命不許人爲僧, 又禁創修寺刹, 臣等以爲, 唐虞三代之治, 可復見於東方, 世宗成宗之化, 可復行於今日. 今未數月, 遽更初命, 命復城內寺刹, 縱未卽誅鋤根本, 豈可恣之轉今盛乎?”

22) 『中宗實錄』「3年 1月 5日」, “臺諫所言之事, 臣在侍從, 聞之詳矣. 國用虛竭, 賢邪混處, 賞罰無章. 臣意殿下初政, 將有淸明之治, 中外之人, 亦庶幾復見世宗成宗之盛治. 今則臺諫所啓, 不允至此, 中外駭愕.”

주장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중종에게 세종성종과 같은 淸明한 정치를 기대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전 시대의 치세를 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하나의 선언적·수사적 구호를 넘어 중종의 정책 방향을 유도하는 핵심 논리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중종대 관료 문인들이 세종성종의 치세를 지속적으로 기억했던 배경과 그 소환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문치’라는 말로 요약되는 이전 시대의 영광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성장한 동시에, 연산군에 의한 정치적 좌절 역시 경험한 세대였다. 때문에 ‘상실된 盛世’에 대한 그리움을 그들의 기록 속에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물론, 중종 당대에 그러한 문치를 다시금 재현해 내고자 하는 바람 또한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은 중앙 조정에서 때로는 당위의 의미로, 때로는 압박의 수단으로 발현되면서, 중종대 정책 기조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주요 논거가 되었다. 요컨대, 이 시기 관료 문인에게 있어 세종성종의 문치에 대한 이상과 그 회복에 대한 희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 Ⅲ. ‘文治’의 정책적 계승 양상

중종대 관료 문인들이 세종성종의 시대를 하나의 이상으로 인식하고 그것으로의 회귀를 정치적 구호로까지 활용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식은 실제 정책의 면면에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되었는가? 다음에서는 盛世 계승 의식이 반영된 몇 가지 학문 정책들을 검토함으로써, 前代의 ‘文治’가 중종대에 나름의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던 정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서적 정비 및 간행 사업

중종대의 문치 정책과 관련하여 먼저 언급할 수 있는 대목은 각종 서적에 대한 정리 및 편찬 사업이 비중 있게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文運의 부흥을 목표로 삼은 이상, 그 근간이 되는 서적의 구비 및 확충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때문에 중종과 관료 문인들은 서적의 관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다. 1515년(중종10) 홍문관 부제학 金謹思(1466~1539)가 올린 차자의 내용을 보자.

書籍의 보관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다스리는 데에 뜻을 둔 자라면 누구든 이를 중요하게 여기니, 이는 대개 聖賢의 말씀과 가르침 및 歷代의 治亂과 興亡이 모두 거기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世宗大王께서는 文教를 깊이 생각하고 서적에 극진한 뜻을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빠진 藏書가 없고 반포하지 않은 서적이 없었으며, 銅字를 鑄造하되 지극히 정밀하게 하였고 고급에 드물 정도로 종이가 깨끗하고 인쇄가 정교하였으니, 節目의 상세함이 또 이와 같이 극진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文治가 찬연히 빛남이 역대 왕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이로 말미암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멀어지고 연대가 오래되어 編帙이 안정하게 보존된 것이 거의 없는데다가 廢朝 때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이 散亡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몹시 애석한 일입니다. (중략)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聖朝의 일을 잇고 아래로 오늘날의 廢頽한 것을 다시 일으키시며, 서적을 구한다는 하교를 내리시되 궁벽한 곳이나 먼 곳에까지 미치도록 하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비록 좁기는 하나 문헌을 오래도록 소장해 온 집안에 어찌 저장된 것이 없겠습니까. 또 中國 조정에 급히 아뢰어 秘藏한 서적을 청하고 성심으로 사들이되 값을 아끼지 않는다면 빠진 經書를 대부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都監을 따로 설치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공인들에게 봉료를 넉넉히 지급하여 일의 성취를 빨리 하도록 하며, 校書가 직분에 소홀히 임하는 것을 엄하게 바로잡으소서. 그렇게 하여 세종조의 옛일을 모두 뒤이어 회복한다면, 어찌 斯文의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sup>23)</sup>

23) 『中宗實錄』「10年 11月 2日」, “書籍之藏, 其來尙矣. 有志致治者, 莫不以斯爲重, 蓋聖賢之立言垂教, 歷代之治亂興亡, 俱在於斯. 世宗大王覃思文教, 極意書籍, 藏

김근사는, 서적에는 성현의 가르침과 역대 治亂興亡이 망라되어 있다고 하면서, 세종 때 유례없는 문치를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로 서적의 확보와 간행을 꼽았다. 그러나 당시는 세월이 오래 지난 데다 연산군의 실정까지 겹침에 따라 소실·손상된 서적들이 다수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都監을 설치하여 국내외로 널리 서적을 구하고 교감과 간행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것이 세종의 옛일을 잇고 斯文을 흥기시킬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뒤, 그는 이어지는 대목에서 수량이 부족한 『朱文公集』, 『朱子語類』, 『伊洛淵源』 등의 經書類나 『資治通鑑』, 『三國志』, 『國語』, 『戰國策』 등의 史書類, 『歐陽公集』, 『二程全書』 등의 文集類를 다시 인쇄하고 반포하여 충분한 수를 구비하도록 하고, 특히 희귀한 책은 각 도로 하여금 木本을 새겨 둠으로써 사람들이 인쇄해 갈 수 있도록 하기를 건의하였다.<sup>24)</sup>

이러한 청을 들은 중종은, 서적은 治道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서적의 간행이 세종 때보다 못함을 언제나 한스럽게 여긴다고 말로 답하였다.<sup>25)</sup> 그리고는 중국에 나간 사신들로 하여금 미비한 서적을 구입해 오

---

無闕書，書無不布，範銅爲字，極其精緻，紙潔印精，前古所罕，節目之詳，且盡如是，而其文治煥然，高出百王者，亦可因是而想見矣。第以世遠年久，全編整秩，所存無幾，加之廢朝，散亡殆盡，誠可痛惜。(中略) 伏願殿下，上述聖祖之事，下起今日之廢，下教求書，傍及僻遠，我國雖偏，文獻舊家，豈無所蓄？且馳奏天朝，以請秘籍，誠心購求，不惜兼價，則遺經逸書，庶幾有得。且別立都監，以董其事，優廩其工，俾速就功，校書廢職，嚴加申糾，一切追復世宗朝故事，豈非斯文之一大幸耶？”

24) 『中宗實錄』「10年 11月 2日」, “又以館意啓曰: ‘我國書籍稀貴, 秘藏所無者亦多。如『朱文公集』, 『資治通鑑』, 『胡三省註』, 『朱子語類』, 『三國誌』, 『國語』, 『戰國策』, 『南北史』, 『隋書』, 『梁書』, 『遼史』, 『金史』, 『伊洛淵源』, 『歐陽公集』, 『眞西山讀書記』, 『五代史』, 『元史』等冊, 皆於本館, 只存一件, 而如『二程全書』, 則私處所有, 而本館全無者也。此等書冊, 視實學, 雖有間, 然若遺亡散失, 則後難得之, 請皆印出, 廣布中外。且凡稀貴書冊, 令各道量其大小之力, 而刻木本, 使人人得皆印之, 何如?’”

25) 『中宗實錄』「10年 11月 2日」, “傳曰: ‘今見筭子, 至當, 近日刊印書冊, 皆不如世宗朝, 予所常慨恨者也, 求遺書, 實關於治道, 其令求賢可也, 校書官員不精監印, 推治亦可, 所啓書冊, 宜多數印出, 私藏書冊亦可搜求印出, 然使校書館監印, 則又必

도록 하는 한편,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을 조정에 바치는 이에게는 후한 상을 내리도록 하였다.<sup>26)</sup> 또한 印書都監을 설치하여 서적의 인쇄와 교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고, 김근사가 언급한 경서 및 사서류를 再刊하도록 명하였다.<sup>27)</sup>

이처럼 ‘문치 계승’의 기초 아래 서적 정비 사업이 중점적으로 수행된 것과 함께, 이 시기에는 문화 부흥을 목표로 한 관찬서 역시 前代에 못지 않은 수준으로 편찬간행되었다. 유가적 교화를 목적에 둔 『翻譯小學』(1518), 『二倫行實圖』(1518), 『呂氏鄉約諺解』(1518), 『正俗諺解』(1518), 『警民編』(1519)이나 어학 분야의 『四聲通解』(1517) 같은 서적들은 모두 위와 같은 斯文 흥기의 기초가 선포된 후 집중적으로 제출된 성과물들이다.<sup>28)</sup>

서적 편찬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續三綱行實圖』(1514),

如前，別設都監，精印頒布，且凡稀貴書冊，亦令外方，酌定刊板印布：仍傳于政院曰：‘其草求遺書傳旨，并及予，常恨書籍不如世宗朝之意。’

『中宗實錄』「10年 11月 4日」，“下傳旨于禮曹曰：‘書籍，治道所寓，歷代攸重，漢之天祿，石渠，唐之秘書，四庫，無非哀集書籍，以爲一代之寶藏，帝王躬行心得之實，雖不可以此而概論，其好尙文雅之美，亦可因是想見矣，我朝自祖宗以來，代尙儒術，聖經賢傳，諸史子集，以至遺經逸書，無不鳩聚，非但爲內府之秘藏，亦且廣布於閭巷。’(中略) 又下旨曰：‘大抵書冊，務要精緻，不當蠹惡。我世宗朝印出書籍，非但紙品甚佳，打印亦極其精，近古書冊之美，無踰於此，其後浸不如古，校書失職，近來尤甚，紙淆墨澆，校讎亦慢，以致書籍拙惡，予竊痛恨。’”

26) 『中宗實錄』「10年 11月 4日」，“我邦雖邈在海外，求之若誠，致書之多，不患不及於古。予欲秘府之內，無書不藏，士庶之家，無書不布。茲令使价之往返中朝者，廣求書籍以來。至於我國，壤地雖褊，文獻世家，亦豈無所蓄？如有遺經逸書，可以資博問裨治道者，不惜來獻，予當厚賞。其以此意，曉諭中外。”

27) 『中宗實錄』「10年 11月 3日」，“傳曰：‘昨教別設印書都監，其令各別稱號，且擇勤謹人掌其事，使不煩費，可也。’”

『中宗實錄』「10年 11月 4日」，“其令別設都監，量擇勤謹人爲堂上，郎官，弘文館所藏『朱文公集』，『真西山讀書記』，『朱子語類』，『資治通鑑』，『胡三省註』，『歐陽文忠公集』，『三國誌』，『南北史』，『國語』，『梁書』，『隋書』，『五代史』，『遼史』，『金史』，『元史』，『戰國策』，『伊洛淵源錄』及私藏『二程全書』等冊，監掌印出，而八道中鉅道，則卷帙多數書籍，小道則卷帙不多書籍分定，開刊節目及都監名號，并磨鍊。”

28) 증중대 편찬간행된 관찬서에 대해서는 신양선, 『조선전기 서지사 연구-16세기 관찬서를 중심으로』, 혜안, 2012, pp.216-235. 참조.

『續東文選』(1518), 『新增東國輿地勝覽』(1530)과 같은 續撰·增補 작업이 중종대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이다.<sup>29)</sup> 주지하다시피 『삼강행실도』는 1431년(세종13) 유가적 교리를 민간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孝·忠·烈의 덕목에서 귀감이 될 만한 행적을 남긴 중국 및 우리나라 역대 인물들의 일화를 총 330항의 삽화로 만들어 수록한 저작이다. 이후 성종은 1481년(성종12) 보다 용이한 이해를 위해 언해를 붙일 것을 지시하였으며, 1489년(성종20) 세종 때 간행된 『삼강행실도』가 다소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총 105항의 규모로 축소 간행하도록 명한 바 있다. 또한 『동문선』은 1478년(성종9) 동방의 시문을 집대성한다는 취지 아래 우리나라의 역대 작품들을 모아 편찬한 서적이며, 『동국여지승람』은 宋나라의 『方輿勝覽』 및 明나라의 『大明一統志』의 체제를 본 따 1478년(성종9) 『八道地理志』 및 『동문선』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지리서이다. 이들은 모두 세종·성종대의 문물 완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과로 여겨진다.<sup>30)</sup>

그런데 중종은 이러한 서적이 출간된 지 3, 4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속집을 편찬할 것을 명하였다. 이 속집은, 이전 서적들의 내용을 단순히 수정·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原書가 편찬된 이후부터 자신의 시대까지 새롭게 등장한 사실들만을 뽑아 엮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즉 『속삼강행실도』에는 『삼강행실도』가 편찬된 1431년 이후 새로 인지된 삼강 관련 사례만이 수록되어 있으며, 『속동문선』에는 성종 이후 배출된 문사들의 작품만이 뽑혀 있는 식이다. 이처럼 이전 시기에 이룩된 문물

29) 중종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속찬·증보 사업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는 필자가 다른 논문을 통해 논한 바 있다. 해당 논문에서 필자는 중종대 속찬·증보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세종과 성종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 편찬된 내용을 살펴보면 연산군에 의해 실추된 자신 및 그 동류 집단의 학적 권위를 회복시키고자 한 정치적 의도 역시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정용건, 「中宗代 續撰·增補 사업과 그 정치적 함의」, 『한문학논집』 50집, 근역한문학회, 2018).

30) 『續三綱行實圖』, 『續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정용건, 위 논문(2018)에 관련 연구 성과 제시와 함께 정리해 둔 바 있다.

집성의 체제를 본 따 자신들의 시대에 추가확장본을 편찬한 사실은, 중종대 문화 정책의 목표가 세종성종의 文治에 대한 계승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지점이다. 실제로 그러한 목적은 각 서적의 序, 跋, 箋 등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① 삼가 생각건대, 世宗莊憲大王께서는 德이 몸소 행하시는 데에서 드러나 시고 성스러움은 실로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었습니다. 이에 節義와 名教에 관계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扶植하고 維持시켜 주지 않음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백성들은 그저 따르게만 할 수 있을 뿐이라 이치를 미루어 알 수 없을까 걱정하셨고, 큰 綱領은 이미 펼쳐졌어도 한 細目이라도 혹 빠뜨렸을까 염려하셨습니다. 이에 博學雅正한 신하에게 명하여 편찬의 임무를 전담시켜 忠孝와 貞烈에 관한 훌륭한 사적들을 두루 採錄하여 中外 백성들의 이목을 聳動케 하셨습니다. (中略) 成宗 康靖大王께서는 道는 緝熙에 나아가고 뜻은 繼述에 두시어, 諺文으로 이 책[『三綱行實圖』]을 새로 풀이한 뒤 각 郡邑에 거듭 반포하여 어리석은 아낙일지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작은 마을에도 파급되지 않음이 없도록 하셨으니, 백성들이 보고서 감화되는 절실함을 어찌 그칠 수 있었겠습니까. 風化의 순후함은 유래가 있었던 것입니다.<sup>31)</sup>

-李荇, 『進續三綱行實圖箋』

②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禮義의 교화를 입었으니, 당초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점차 높은 경지로 옮겨갔습니다. 고려의 運氣가 다시 빛남에 미쳐 文風이 藹然히 크게 변화하였으니, 紛亂을 푸는 것이 대부분 詞命에 힘입었고 나라를 빛내는 일 또한 風謠에서 말미암았습니다. 5백 년간 이어진 고려의 王氣가 이미 사그라지고 1천 년 동안 이어질 文運이 크게 진작되었습니다. 시대가 태평하니 조정에는 모두 훌륭한 인재이고, 英才를 교육하니 학교에는 걸출한 선비로 가득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成宗

31) 李荇, 『容齋集』「進續三綱行實圖箋」, “恭惟世宗莊憲大王, 德著躬行, 聖固天縱, 凡關節義名教, 莫不扶植維持. 小民可使由之, 尙恐三隅之不反, 大綱旣已張矣, 猶慮一目之或遺. 爰命博雅之臣, 俾專編錄之任, 旁採忠孝貞烈之卓異, 以聳中外衆庶之見聞. (中略) 成宗康靖大王, 道就緝熙, 志存繼述, 用諺字而新譯, 暨郡邑而重頒, 雖愚婦可以易知, 於委巷亦無不及, 觀感之切, 烏可已乎? 風化之淳, 有自來也.”

康靖大王께서는 언제나 학문을 생각하시고 道는 천지의 다스림에 합치되었습니다. 英才들을 망라한 것이 唐太宗 때 登瀛州의 고사보다 훌륭하고, 宸翰을 빛내는 것이 漢武帝의 秋風辭를 비루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돌아보건대 역대 의 風騷는 실로 道를 전하는 羽翼입니다. 동방의 문장 중에 좋은 것을 가져다 詞臣에게 명하여 부문을 나누도록 하셨으니, 이에 先哲들의 업적이 판각에 환히 새겨져 후세에 보일 모범이 갖추어졌습니다.<sup>32)</sup>

-崔淑生, 『進續東文選箋』

①은 『속삼강행실도』에 대해 李荇이 지어 올린 箋이다. 여기에는 절의와 도덕을 숭상하였던 세종과 성종이 백성에 대한 유가적 교화를 위해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그는 연산군의 실정으로 인해 世道가 실추된 상황에서는 백성들을 새롭게 흥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종과 성종의 전례에 따라 『삼강행실도』에 대한 속집을 짓게 되었다고 말한다.<sup>33)</sup> 한편 ②는 『속동문선』의 편찬 경위에 대해 崔淑生이 지은 箋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禮義의 교화를 입어 文風이 융성하였는데, 특히 조선에 들어와서는 文運이 더욱 진작되어 훌륭한 인재가 넘쳐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학문을 흥기시키고 道에 맞는 정치를 시행한 성종은 역대로 제출된 훌륭한 문장을 선발하여 한

32) 崔淑生, 『續東文選』, 『進續東文選箋』, “粵我朝鮮之邦, 舊被禮義之化, 當初雖索塗而摘埴, 厥後漸出幽而遷喬. 迨麗運之重熙, 藹文風之丕變, 解紛多賴於詞命, 華國亦由於風謠. 五百年王氣已消, 一千載文運大振. 翩翩其羽, 朝著盡鳳鳴之才; 菁菁者莪, 學校皆豹變之士. 恭惟成宗康靖大王, 學典終始, 道合彌綸, 網羅群英, 勝唐宗登瀛之選, 昭回宸翰, 陋漢武橫汾之詞. 眷言歷代之風騷, 實是傳道之羽翼, 載取東文之入室, 乃命詞臣而分門, 先哲之剗剗粲然, 後生之模範備矣.”

33) 李荇, 『容齋集』, 『進續三綱行實圖箋』, “何圖天運之否, 幾致人紀之墜? 主上殿下, 以上聖之資, 值中興之會, 革舊染而更始, 監成憲以無愆, 謂綱常爲宇宙之棟樑, 在人心猶不墜而作新, 待君師之鼓舞, 承亂政所當先, 顧惟僕循所編, 止於宣德以上, 非但未及於近世之事, 亦多有漏於大明之初, 茲撰續圖, 適丁今日, 臣等, 俱以庸魯, 叨奉德音, 縱文獻之足徵, 奈述作之有愧, 摹形而紀其實行, 悉遵世宗之前規, 逐節而譯以方言, 竝用成廟之遺式, 循其迹而是錄, 故厥數之不同, 謹彙粹而纂修, 輒裝綴而上進, 其則不遠, 無待面命而耳提, 於變時雍, 佇見治隆而俗美.”

데 묶음으로써 동방의 문치를 크게 드높였다고 말한다. 위와 같은 저작 의도에서 알 수 있듯, 편찬 주체들은 속찬·증보 사업의 시행을 통해 先王이 이룩한 문화적 성취를 이어나감으로써 자신들이 연산군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이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중종대의 관료 문인들은 각종 서적에 대한 정비 작업을 시행하는 한편, 학문 흥성과 교화를 목적으로 한 관찬서 편찬 사업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세종과 성종의 문치를 자신의 시대에 재현해 내고자 하는 관료 문인들의 목표의식이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 2. 인재 양성과 문사 우대 정책

중종대의 문치 계승 의식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는 인재 양성과 문사 우대 정책을 들 수 있다.

중종대 학문 현실에 있어 가장 문제시되었던 부분은 연산군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士氣가 침체되어 있었던 점이다. 때문에 당대의 관료 문인들은 훌륭한 인재들이 가득했던 세종과 성종의 치세를 떠올리며, 정권 초기부터 인재 육성 및 학문 흥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펼쳤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것이 바로 제도와 규례의 정비를 통한 ‘官學의 정상화’였다. 다음의 발언을 보자.

인재가 진작되지 않음이 지금과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成宗朝에서는 인재를 양육하여 훌륭한 선비들이 다수 배출되었으나, 불행하게도 廢主가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후로는 士氣가 蕭索해져 文學에 뜻을 두지 않고 청탁을 통해 벼슬에 나갈 마음을 먼저 품고들 있으니, 이는 학문을 勸勵하는 것이 올바른 길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래 武士를 대상으로 활쏘기를 시험하되 優等을 한 자에게는 그때마다 賞物을 하사

하시니, 무인들이 이를 영화롭게 여겨 다투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成均館과 四學의 居齋 儒生에게도 또한 불시에 點名하여 製述이나 講經을 하되 入格한 자에게 서책을 하사하여 권면하는 뜻을 보이신다면, 저들도 반드시 임금의 하사품을 영광으로 여겨 학문에 힘을 쓸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sup>34)</sup>

위는 1508년(중종3) 지평 申鑑(1480~1530)이 경연 자리에서 중종에게 학문 흥기 방안에 대해 진언한 대목이다. 그는 성종 때 인재 육성에 힘을 쏟은 결과 걸출한 선비들이 다수 배출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연산군에 의해 저하된 학풍을 진작시킬 방도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成均館과 四學의 유생들을 불시에 점검하여 製述이나 講經을 시키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에게 상을 내려줌으로써, 학문에 힘쓰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것이었다. 신상이 이러한 의견을 아뢰자 같은 자리에 있던 신용개도 그의 말에 동조하면서, 師儒가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을 성균관동지사로 선발하여 유생을 가르치고 四學 교수에게는 久任한 자에 한해 陞遷시키는 혜택을 줌으로써 教導의 업무에 더욱 힘을 쏟도록 유도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예전에는 당상관이 한 달에 2, 3차례씩 성균관에 나아가 製述이나 講經을 행하였는데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다시금 이 규례를 시행하여 관학을 중시하는 뜻을 보일 것을 청하였다.<sup>35)</sup> 요약하자

34) 『中宗實錄』「3年 10月 22日」, “人才之不作, 莫此時若也. 在成宗朝, 養育人材, 多士輩出, 不幸廢主, 誅竄殆盡, 自此以後, 士氣蕭索, 不志文學, 先有媒進之心, 此勸勵之不得其道也. 近者令武士試射, 優等者輒賜賞物, 武人以爲榮, 爭相鍊習. 如儒生之居館學者, 亦不時點名, 或製述或講經, 其入格者, 或賜書冊, 以示勸勉, 則彼必以君賜爲榮, 多有興起之心矣.”

35) 『中宗實錄』「3年 10月 22日」, “知事申用漑曰: ‘人才之不作, 果如申鑑所啓, 曩時雖宰相之子, 篤志學業, 老而無成, 乃始求官, 今則不然, 纔免襁褓, 皆懷媒進之心, 不業文學, 雖有志學者, 率皆居家鍊業, 不喜居館, 爲今計者, 莫若擇有物望者, 以爲表率, 如姜景叙, 南袞, 兼差同知, 以之訓誨, 則儒生庶可興起, 而樂爲赴學矣. 於是而試才, 或直赴或賜書冊, 則人才何患不作乎? 且四學官員, 授職未久, 輒遷他官, 故不以久居爲計, 不勤於教導. 今後四學教授擇差, 而久任者陞遷, 何如? 且曩時輪次堂上, 一月之內, 二三次就成均館, 或製述, 或講經, 今則廢, 請申明舉行, 非獨館也, 四學亦依成均館例, 令以堂下官有文學者, 輪次仕進, 考其儒生之製述.’”

면 유생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엄격히 하고 관학 교수들의 역할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견해는 다른 관료의 발언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1510년(중종5) 영의정 金壽童(1457~1512)은 인재를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중종에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였던 세종과 성종대의 일을 거론하며 師儒에 합당한 자를 뽑아 관학의 교수로 임명하되 다른 관사로 옮기지 않고 오래도록 직임을 맡으면서 유생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sup>36)</sup> 또한 1514년(중종9) 최숙생은 국정 운영에 대해 논한 12조목의 상소를 올리면서, 그 첫머리에 학교를 흥기시켜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과거 시험에 대비한 記誦에만 힘을 쏟는 나머지 스승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면서, 師儒를 가려 뽑아 그 임무를 專任시키되 스승의 강학 내용을 講經 시험과 연계시킴으로써 스승을 섬기는 풍조를 자연스레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7)</sup> 師儒의 위상을 제고하고 학교의 기강을 바로 세움으로써 유생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관료 문인들의 이와 같은 견해는, 이후 '勸學節目'의 형

36) 『中宗實錄』「5年 9月 24日」, “金壽童等啓曰: ‘大抵人材之難, 自古然也. 古以天下之大, 猶有才難之語, 我國至小, 人才之難, 無足怪者. 然古人云: 「材不借於異代。」我世宗成宗, 皆能養育人材, 故人材輩出, 蔚爲名臣, 有濟濟多士之美. 及廢朝殺戮縉紳, 人材彫喪, 及我聖上中興, 復育人材. 然外方來仕者, 以養親爲重, 文士多補於外, 人材尤不足也. 聖上以育人材爲重, 下問於臣等, 此志甚盛, 能繼此志, 則可以馴致人材之盛也. 文王能養育人材, 故有濟濟多士之美. 殿下此志, 與文王何異? 臣等每朔, 輪次往見成均館, 官員教誨者甚少. 師儒可當者, 宜多擇差, 勿遷於他司, 則庶有養成人材之效.’”

37) 『中宗實錄』「9年 10月 25日」, “大司諫崔淑生等上疏, 條陳十二事: ‘其一. 學校, 賢才所出, 風化所關, 近來學者, 不務師授, 爭抄訓誥, 以圖記誦, 僥倖得第, 人皆效之, 至於窮鄉僻學, 雖昧宗指, 若能口誦, 謂熟其業, 一概取之, 但較生熟, 毋論精粗, 以此, 悠悠之輩, 便謂: 「科舉之學, 安坐可能, 不必從師。」厭居學宮, 傲視師長, 人自爲學, 各立私議, 摘瑣冥行, 勢將失道, 奈何不救? 宜抄選師儒, 俾專其任, 待以悠久, 數遣內臣, 講考儒業, 仍賜酒果, 以示褒賞, 至於講經取士之時, 亦令上項師儒主之, 其所言, 合於平日所講者則取之; 不合則黜之, 自然人爭事師, 學歸于一, 切不可屢行庭試, 使之奔波希恩, 爭慕捷徑, 以開倖門, 亦不可數設別試, 使之爭事模寫, 棄本就末, 以長浮競之習.’”

대로 명문화되어 관학의 실제 규례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sup>38)</sup>

한편으로, 중종대 관료 문인들은 학문의 흥기를 위해서는 학교의 정상화 뿐 아니라 문사를 우대하는 실질적 조치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세종 때는 集賢殿이 있고 성종 때는 弘文館이 있어 유능한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학문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제도의 존재와 그 명실상부한 운영이야말로 문사 양성의 기본 토대가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역설하였다.<sup>39)</sup> 이러한 맥락 하에, 제도의 측면에서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었던 논의가 바로 ‘사가독서제의 내실화’였다.

주지하다시피 사가독서제는 나이 어린 유망한 관원을 선발하고 별도의 여가를 주어 다른 직임을 맡기지 않고 학문과 문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sup>40)</sup> 이 제도는 세종 때 처음 도입된 이래 연산군 초기까지 이어지며 인재의 산실로 인식되었으나, 士禍를 거치면서 폐지되고 말았다. 비록 중종 초기에 다시 시행되어 일부 관원들이 사가독서의 기회를 제공 받기는 하였지만, 置廢가 거듭되는 과정 속에서 실제적인 운영은 다분히

38) 1519년 己卯士禍로 인해 道學을 주창한 사류들이 대거 조정에서 물러나자, 학문의 침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1534년과 1535년 韓效元, 金謹思, 金安老와 같은 관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勸學節目』을 만들어 유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였다. 여기에서 중시된 핵심 기조 역시 ‘官學의 정상화’였다. 이에 대해서는 정용건, 앞 논문(2017) 참조.

39) 『中宗實錄』「6年 12月 7日」, “領事宋軼曰: ‘弘文館, 自唐置之. 我世宗朝, 號爲集賢殿, 不唯文學之士, 雖年老有德行者, 皆得選置, 以備顧問. 世宗於書, 有未解處, 使世子往問, 成宗朝待之亦優. 成宗聖學高明, 中年以後, 使館員, 或試射, 或製述, 以其時大平, 朝廷無事故也.’”

『中宗實錄』「8年 4月 13日」, “領事宋軼曰: ‘世宗朝, 設集賢殿, 其一時人才, 皆選之, 或有選其能文, 或短於文而有行實者, 則亦與焉. 文宗爲世子時, 親自論難, 至世祖朝, 始廢之. 成宗又立其館, 名以弘文, 一時可用之人, 則皆選之, 不拘其數, 皆錄而用之. 雖參錄之人, 若有不當, 則不用焉.’”

40) 사가독서제의 체제와 운영에 대해서는 김중권, 「성종조의 賜暇讀書에 관한 연구-사가독서자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14, 서지학회, 1997; 이종묵, 「사가독서제와 독서당에서의 문학 활동」,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 참조.

형식적인 데로 흘러간 경향이 있었다.<sup>41)</sup>

때문에 관료 문인들은 사가독서제가 과거와 같은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청하였다. 예컨대 신용개는 독서당이 京中에 있는 탓에 선발된 인원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독서당을 豆毛浦로 옮길 것을 건의하는 한편, 이들의 학문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經費나 使令, 書冊 등의 지원을 넉넉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42)</sup> 최숙생 역시 앞서 언급한 12조목 상소의 3번째 항에서 사가독서를 언급하면서, 인재 양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sup>43)</sup> 이와 같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결과, 1517년(중종12) 東湖(현재 옥수동)에 독서당이 신축되는 한편, 선발 인원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거나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이에 상을 내리는 등 사가독서자들을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다.<sup>44)</sup>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종대 전 시기에 걸쳐 사가독서제가 시행되었고 인재 역시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었다. 물론 규모나 내실 면에서 이전 시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내부적으로 꾸준히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중종대 인재 육성에 있어 사가독서제가 수행한 역할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sup>45)</sup>

관료 문인들이 주창한 인재 양성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물론 經術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지만 문장에 뛰어난 인재를 배양하는 데에도 깊

41) 중종대 사가독서제의 운영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중권, 「中宗朝의 賜暇讀書에 관한 연구-賜暇讀書者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18호, 서지학회, 1999. 참조.

42) 『中宗實錄』「3年 10月 22日」, “知事申用漑曰: (中略) 讀書堂在京中, 賜暇人員, 數往來其家, 朋友亦多尋訪, 不得專業, 龍山讀書堂修葺間, 請於齊安大君 豆毛浦亭子處之, 使專其業, 且書堂, 支應甚薄, 使令不足, 當優禮遇之.”

43) 『中宗實錄』「9年 10月 25日」, “臣等聞之, 我世宗大王, 嘗設賜暇之選, 成宗亦嘗試之矣. 當時春春日隆, 使問相繼, 與選者, 莫不勸勉, 不敢自逸, 至今以爲美談. 至於廢朝, 猶踵而爲之, 若夫禮接之厚, 則蓋闕如也, 士林之禍, 豈無所自乎? 忘設醴酒, 則賢者不留; 市其死骨, 而駿馬自至.”

44) 김중권, 위 논문(1999), pp.326-332; pp.339-348. 참조.

45) 중종대 사가독서자 명단에 대해서는 김중권, 위 논문(1999), pp.348-365. 참조.

은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가독서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도의 내실화를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에는 ‘문사의 양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학습이 이루어진 분야 역시 경학보다는 문장이 우세하였다.<sup>46)</sup> 기실 관료 문인들은 학문에 있어 경학 뿐 아니라 문장에 대한 학습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조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道學을 중시한 신진 사류와의 대립이 격화된 1519년을 전후한 시기에 두드러졌다. 비록 詞章이 末端의 기예이기는 하지만 국가 경영에 있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인데, 당대의 신진 사류들은 오직 경학만이 학문이라고 여기며 문장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sup>47)</sup> 곧 후대에 이들을 ‘詞章派’로 불리도록 만든 ‘文章 학습 강조의 논리’이다.

관료 문인들이 문장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근거로 내세운 ‘국가 경영’이란, 곧 중국에 대한 사대 외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문 수창’의 수월한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세종 때 명나라 翰林 倪謙이 사신으로 온 이래, 조선에서는 이들을 맞이하며 시문을 주고받는 일이 중요한 외교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사신들이 대부분 중국 내의 유력 문인이었던 만큼,

46) 『中宗實錄』「12年 1月 19日」, “柳雲曰: ‘我國, 以事大之邦, 文藝勸獎之事, 當從祖宗朝爲之, 可也. 雖然, 華國文章, 非吟詠、雕琢之謂也. 經術, 乃其本也. 月課, 已令立法矣, 自今而後, 不可專尙詞華之習也. 頃者使讀書堂員所製, 皆令繕寫入內, 其所製之詞, 不過吟風詠月之作, 非人主所尙也. 又於宣醞之時, 使製詩以進, 此雖祖宗朝勸獎之事, 然皆無實, 不可尙也.’ (中略) 同知事南袞曰: ‘自古無眞儒. 漢武以雄才大略, 表章六經, 而只得一董子; 唐太宗之時, 房杜諸人, 僅成相業; 宋時, 果多眞儒, 乃私淑諸人, 非人主作成, 而致之也. 詞學, 乃末事, 而眞儒有數. 讀書堂, 乃世宗朝所設, 而又賜書籍, 藏修游息, 隨人才大小, 以作成, 一時人材, 蔚然可觀, 皆以詞學爲尙, 由詞學, 可至於聖學也. 我國非徒事大, 至於交隣, 詞華爲重, 不可不勸礪之也.’”

47) 『中宗實錄』「13年 6月 8日」, “知事南袞曰: ‘詞章之事, 國家之所宜慮也. 小臣多見諸友所製之文, 則其詞章, 漸不如古, 各以己意, 別作一體, 不顧規矩, 隨意放下. 古人則盡其學焉, 然後恣意下筆, 不盡所學, 而先爲效此, 豈足可觀.’”  
『中宗實錄』「15年 9月 29日」, “特進官韓亨允曰: ‘近年以來, 士習托以性理之學, 而不尙詞章之華, 至爲誤也. 我國之於中國, 言語不似, 而所以見重者, 以其文雅不讓於中華也. 此雖末技, 我國之人不可廢也.’”

이들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시문 대결을 펼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조선이 지닌 학문과 문화의 수준을 대외적으로 내보이고 공인받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료 문인들은 사장을 중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때면, 그것의 외교적 필요성을 관습적으로 강조하였다.

① 知事 南袞이 아뢰었다.

“(前略) 世宗 때 중국의 倪謙이 사신으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文學하는 선비들이 매우 많아 그와 서로 酬唱한 작품이 중국의 것보다 못하지 않았으니, 예겸이 중국에 돌아간 뒤 우리나라 문장의 융성함에 대해 극구 찬양하였습니다. 또 예겸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 세종께서는 조정 문신들로 하여금 모두 送別詩를 지어 주게 하고, 鄭麟趾에게는 序文을, 成三問에게는 跋文을 지어서 붙이게 하였습니다. 예겸이 이를 받아 가지고 돌아가서 그 篇名을 『遼海篇』이라 하였는데, 중국의 인사들이 이것을 板刻으로 간행하여 전파하기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 만약 예겸 같은 사람이 사신으로 온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sup>48)</sup>

② 金安老가 아뢰었다.

“(前略) 예로부터 인재를 양육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거듭 노력을 쌓은 뒤라야 성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交隣하고 事大하는 예가 있으니 문학하는 선비가 맡을 일이 당장 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다면 끝내는 어떠한 지경에 이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예우해 주는 것은 문장과 학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거 祁順 같은 文臣이 우리나라에 使臣으로 온다면 한가롭게 쉬는 장소나 놀이를 즐기는 곳에 이르러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를 지어낼 것인데, 이에 대해 붓을 잡고 그 예봉을 당해낼 자 누가 있겠습니까. (後略)”<sup>49)</sup>

48) 『中宗實錄』「13年 6月 8日」, “知事南袞曰: ‘(前略) 在世宗朝, 中朝倪謙, 奉使而來. 我國文學之士, 於斯爲盛, 其相所唱酬, 不下於中朝之所作, 倪謙還上國, 極贊文章之盛. 且倪謙了事將還, 世宗令在朝文臣, 皆作送別詩以與之, 又令鄭麟趾序其端, 成三問跋其尾. 倪謙受而歸, 名其所編曰『遼海篇』. 中朝之人, 至以刊板而傳播, 眞盛事也. 在今若倪謙者, 奉命而來, 則豈能如是乎? 是亦可慮也. (後略)’”

위는 사장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남곤과 김안로의 발언 중 일부이다. 이들은 모두 세종과 성종 때 사신으로 나온 중국 문사와의 시문 수창 사례를 거론하면서, 저들의 문학 역량에 문제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文士의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남곤과 김안로를 비롯한 관료 문인들은 젊은 시절부터 문장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으며 성장한 집단이었던 만큼, 외교 국면에서의 사장의 효용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종 때 예겸이 申叔舟, 成三問, 朴彭年 등의 문사와 시문을 주고받은 뒤 이들의 文才에 감탄했던 일이나, 성종 때 徐居正이 명나라 사신 祁順과 시문 대결을 벌인 결과 그의 文名이 중국에까지 알려지게 된 일 등을 문단의 美談으로 전해 오면서, 사신 접반의 장을 ‘문명국’으로서의 조선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막중한 기회로 인식하였다.<sup>50)</sup> 그러한 ‘경험’과 ‘기억’이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문장에 대한 학습 장려나 사가독서와 같은 문사 우대 정책의 유력한 명분으로 중국 사신과의 수창을 거론하였던 것이다.<sup>51)</sup>

49) 『中宗實錄』「29年 閏2月 24日」, “金安老曰: ‘(前略) 自古養育人材, 非一朝一夕之所能致也, 必有積累之功, 而後有成也. 我國有交隣事大之禮, 文學之士, 在所當急. 今若是, 則未知終至於何如耶? 中國之所貴我國者, 以其有文章學問也. 設使文臣天使如祁順者, 奉命而來, 或於燕息之所, 或於遊觀之地, 應口賦詩, 其能操筆, 而當其鋒者, 未知其爲誰耶? (後略)’”

50) 『中宗實錄』「3年 10月 22日」, “參贊官李世仁曰: ‘今日所啓, 皆養育人材事, 請留意焉, 我國雖在海外, 中朝以文士之多爲美, 先是天使倪謙出來, 見成三問, 朴彭年之才, 稱爲小中華, 今弘文館官員有將來者, 使久居其任, 以成華國之才.’”

金安老, 『希樂堂稿』「龍泉談寂記」, “成廟朝祈戶部順來領帝命途所由覽物興詠, 遠接使四佳徐先生 名居正 以爲平平心易之. 竣使事明日, 四佳以漢江之遊請, 順曰諾, 在途酬唱, 客先主人, 明者江上, 主人先客, 以起興可也. (中略) 二公巧速略相敵, 猶兩雄對陣, 持久不決, 奇正變化, 若不相諳, 鋒交戰合, 電流雷迅, 而揖讓之氣, 存乎鼓旗之間, 雖堂堂八陣舉扇指揮, 而仲達之算無遺策, 亦未易降也. 順嘗曰: ‘先生在中朝, 亦當居四五人內矣.’”

51) 이러한 의식의 연장에서, 당대의 관료 문인들은 중국 사신의 방문에 대비하기 위해 시문 수창을 별도로 준비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조선에 파견된 중국 사신들이 시문을 지을 때에는 주요 客館과 정자에 걸린 시나 『皇華集』에 수록된 시를 次韻하기 마련이므로 특별히 선발된 문신으로 하여금 기존 작품에 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중종대 관료 문인들은 세종성종대의 文運을 회복하기 위해 인재 육성에 큰 관심을 기울여 관학 활성화, 사가독서제 정비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사장의 효용성을 근거로 들며 재능 있는 문사의 양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세종성종대로부터 이어진 중국 사신과의 시문 수창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문장의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기 관료 문인들이 學問 振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사장의 중요성을 특별히 역설한 의식의 기저에는 이전 시기의 文治에 대한 강한 향수와 계승 의지가 자리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IV. 결론

본고는 中宗代 官僚 文人들의 의식 속에 世宗·成宗대의 ‘文治’에 대한

---

해 미리 차운시를 지어 두어 수창에 대비하기를 청하는가 하면, 당대에 이름난 문사로서 당시 외지에 있거나 파직되어 있던 이들을 급히 불러들여 수창에 투입하기를 청한 것이다. 이는 당대 조정에서 뛰어난 문사의 보유와 그 시문 능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세종성종대의 시문 수창이 하나의 ‘아름다운 故事’로 자리 잡은 이상, 이들의 시대를 계승한 관료 문인들로서는 자기 시대의 문운 역시 이전에 못지않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中宗實錄』「32年 3月 2日」, “禮曹啓曰: ‘天使於一路, 晝則吟詠, 夜則書寫云, 疑或製詩也. 路上宿製, 一時皆出, 則遠接使, 恐不能獨當也. 自義順館, 至碧蹄諸站, 板上題詠, 則遠接使, 必與從事官等, 既悉次韻矣, 若大平館, 濟川亭等處題詠, 及『皇華集』所錄前天使所製諸詩, 與喜晴大平館等賦, 預令抄定文臣等, 各自次韻以待何如?’ 傳曰: ‘如啓.’”

『中宗實錄』「32年 11月 3日」, “領議政尹殷輔, 左議政柳溥啓曰: ‘(前略) 且天使出來, 其遲速, 時未의 知, 然天使望, 中朝既已擬議云, 則其來必矣. 令大提學, 抄文臣, 而課習製述至當. 然必不勤製, 請以『皇華集』中之韻, 逐日次之何如? 成世昌, 宋麟壽, 已命放還, 近將入來矣. 鄭士龍罷職在外, 竝令上來何如? (後略)’”

기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것이 당대의 학문·문화 정책 추진에 주요한 동력이 되었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중종대 관료 문인들은 세종·성종으로 대표되는 이전 시기의 文運 盛世를 경험한 세대로서, 燕山君 시기에 정치적 좌절을 겪은 뒤 중종대에 이르러 과거의 정치를 자신의 시대에 구현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들이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성종의 치세가 훌륭한 故事로서 빈번히 언급됨은 물론, 이에 대한 계승이 정치적 구호로까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과 열망은 단순한 修辭나 名分 차원에서 활용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정사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서적의 정비 및 간행, 인재 육성 등 각종 학문 정책 국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전기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세종·성종대의 학문적 유산은, 중종의 시대에도 여전히 ‘文治’라는 이름으로 유효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文治’라는 키워드를 통해 중종대 관료 문인의 가치 지향과 실제 정책을 분석하는 작업은, 이들의 학문관을 이전 시기와의 연속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본다. 아울러 이는 그간 ‘詞章’라는 이름하에 다분히 평면적인 해석을 면치 못하였던 이들의 당대 활동에 입체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들 나름대로 영위해 갔던 시대정신의 일면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參考 文獻〉

『朝鮮王朝實錄』(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姜渾, 『木溪逸稿』, 한국문집총간 17, 민족문화추진회.

金安老, 『希樂堂稿』, 한국문집총간 21, 민족문화추진회.

金淨, 『冲庵集』, 한국문집총간 23, 민족문화추진회.

宋寅, 『頤庵遺稿』, 한국문집총간 36, 민족문화추진회.

申用漑 외, 『續東文選』, 慶熙出版社, 1970.

申用漑, 『二樂亭集』, 한국문집총간 17, 민족문화추진회.

申欽, 『象村稿』, 한국문집총간 72, 민족문화추진회.

尹根壽, 『月汀集』, 한국문집총간 47, 민족문화추진회.

李荇, 『容齋集』, 한국문집총간 20, 민족문화추진회.

趙光祖, 『靜菴集』, 한국문집총간 22, 민족문화추진회.

沈義, 『大觀齋亂稿』, 한국문집총간 19, 민족문화추진회.

김중권, 「成宗朝의 賜暇讀書에 관한 연구—賜暇讀書者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14, 서지학회, 1997.

김중권, 「中宗朝의 賜暇讀書에 관한 연구—賜暇讀書者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18, 서지학회, 1999.

신양선, 『조선중기 서지사 연구—16세기 관찬서를 중심으로』, 혜안, 2012.

오세현, 「조선중기의 '斯文'과 文章 四大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종묵, 「남근의 삶과 문학」, 『한국한시작가연구』 4호, 한국한시학회, 1999.

이종묵, 「사가독서계와 독서당에서의 문학 활동」,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

이종묵,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성격과 문예미」, 『국문학연구』 8호, 국문학회, 2002.

정용건, 「中宗代 續撰·增補 사업과 그 정치적 함의」, 『한문화논집』 50집, 근역한문학회, 2018.

- 정용건, 「止亭 南袞의 학문 지향과 문학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정용건, 「希樂堂 金安老의 文章觀과 學問 興起論」, 『大東漢文學』 50호, 대동한문학회, 2017.
- 최민규, 「남곤의 경학·문장 병행의 학문관과 정치의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Abstract

*Memories and Political Succession of 'Academic policy(文治)' in the  
Jungjong(中宗) Dynasty\**

*- Focu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Sejong(世宗) and Seongjong(成宗)  
Dynasty's Scholarship -*

Chung, Yong-gun\*\*

This thesis researched that the memories of 'Academic policy(文治)' of Sejong(世宗) and Seongjong(成宗) Dynasty were firmly established in the consciousness of the bureaucrats in Jungjong(中宗) dynasty, and it became the main power for the promotion of academic and cultural policies of the time.

As the group who experienced the former time's cultural prime represented by Sejong and Seongjong, the bureaucrats in Jungjong dynasty(中宗代 官僚 文人) set the first goal to realize past politics in their own age. Looking at their literature materials, it can be seen that the reign of Sejong and Seongjong has been consistently mentioned as a splendid historical event, and its succession has been used as a political slogan. And it was not only a mere rhetoric, but also actively reflected in actual works, and played a key role in leading academic policies such as maintenance and publishing of books,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political legacy of Sejong and Seongjong which had been the prime of the early Joseon Dynasty, was still maintaining its status as a name of 'academic policy' in Jungjong dynasty.

Analyzing the values and actual policy of the bureaucrats in Jungjong dynasty in terms of 'academic policy' is meaningful in that it enables us to grasp the scholarship in a continuous context with the previous period. In addition, it will help to understand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Plus project of The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Scholar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orea University.

\*\* Doctor's course completion, Major in Classical Chines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 macho703@naver.com

one side of the age spirit that has been running in their own way by giving stereoscopic vision to the activities of those who have been get a fairly flat interpretation under the name of 'School of literature(詞章派)'.

**【Key words】** Academic policy(文治), Sejong(世宗), Seongjong(成宗), Bureaucrats in Jungjong dynasty(中宗代 官僚 文人), School of literature(詞章派)

투고일 : 11월 11일, 심사완료일 : 12월 3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